

자기소개서

소 속	청운초등학교	직 위	교 감	성 명	권 의 주
-----	--------	-----	-----	-----	-------



1. 성장 과정



저는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였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완주군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지금은 전주에서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금방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하루에 버스 몇 대 다니지 않는 찻집산중의 산촌 지역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주변 환경이 물리적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하였지만 시골에서의 성장과정을 통해 얻어진 아름다운 기억은 지금까지 제가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준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뛰어 놀면서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웠고 따뜻한 감성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들보다 좀 이른 나이인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을 여의고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성장하였지만 내 아이들만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부재를 외로움이나 아픔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어머니의 사랑으로 저희 4남매 중 셋은 모두 초등교육실천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어머니의 삶을 통해 교육실천가로서의 숭고한 헌신의 정신과 사명감도 배웠습니다.



2. 국가관



2050년이 되면 더 이상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질 것이라는 미래예견 보고서도 있지만, 내가 태어나 자라왔고 내가 만났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이어가야 할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은 헌법정신이 지켜지고 국민 모두가 존중받는 민주시민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원하는 나라는 아무런 노력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현재의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참여와 연대가 지니는 민주시민성의 엄청난 힘과 가치를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후손들이 미래에도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참여와 연대할 수 있는 힘, 나눔과 배려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이며 교육자인 제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교육관



1990년 6월 1일 부안 의복초등학교 근무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 현재까지 26년 7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소중한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초임 근무지였던 의복초등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읍내 학원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해서 학원 수강이 무척 곤란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2년 동안 저녁시간에도 저녁식사 후 학교에 다시 등교하도록 하여 7시부터 10시까지 매일 보충지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학교에 방과후학교나 돌봄학교 등이 없었던 때라 저녁 먹고 모이는 저녁학교에서 함께 책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는 것이 아이들이나 제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곳에 가르침이 있다.'는 저의 교육관은 이후 8개 학교를 거치는 동안 기본을 소중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 변함없이 지켜왔습니다.

오랜 시간의 교직생활을 돌이켜 생각해볼 때 보람도 많았지만 아쉬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좀 더 헌신하는 교사가 되었더라면~.', ' 좀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더라면~.'하는 아쉬움입니다.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 직접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입장에서 직접 가르침을 행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오랜 시간의 교직생활 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또래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다른 아이들과 갈등을 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대부분은 아이들 자체의 문제 요소보다는 가정과 사회의 관심과 사랑 부족이 더 많습니다. 하나하나의 소중한 존재로서 아이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학교가 결핍의 지점들을 잘 관찰해서 메워주고 인정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으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학교가 그 존재 목적에 맞게 부여받은 역할을 다하여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의 멋진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고 저는 그 공간의 관리자가 아닌 그 공간 속의 지원자이자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4. 특기 및 취미 생활



제 스스로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활동적이기보다는 정적인 생활을 즐겨하는 편인 듯합니다.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편이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 차를 마시며 담소 나누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정적인 성향으로 운동에 자신이 없었던 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두 가지 운동을 배우게 되었는데 대학시절에는 3년여 정도의 수련을 통하여 검도 2단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수영도 배우게 되어 지금도 톡톡이 수영은 즐기고 있습니다.

3년여 정도 배운 검도 수련으로 교사 시절에는 부안에서 근무할 때 검도부를 만들어 지도하고 전라북도교육감기 학생검도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일본어에 관심을 갖고 4년 정도 공부하여 어렵지 않은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일본어 회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여 누군가에게 저의 작은 능력이 도움이 된다면 그 능력을 활용하여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동안 60회 이상의 헌혈을 실시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수여하는 헌혈유공장 금장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헌혈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지속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5. 학교 운영 포부



23년 3개월의 시간을 부안에서 보내고 김제에서 근무한지 3년 4개월의 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저에게 죽산초등학교에서의 근무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죽산이 저의 고향이라 생각하며 헌신하는 교육실천가로서 성심을 다해 근무하고자 합니다.

2013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죽산초에서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매우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음발이 곱고 아름다운 아이들을 만났고, 학교교육 활동에 적극적인 신뢰와 지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을 만났으며, 따뜻한 인성을 가지고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던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산초등학교에서 행복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저 역시 학교장으로서는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교장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올바른 관계가 설정된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인격체로서 저마다 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올바른 관계를 설정해 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혼자만의 권한은 내려놓을 것이며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인간적인 예의를 갖춰 신뢰 속에 천천히 나아가는 과정으로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2. 민주적 의사결정과 새로운 리더십이 존재하는 학교

기존의 수직적인 학교의 인적구조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 온 교사들은 학교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 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 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은 학교장의 결정을 수긍하고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교사들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면 성취감을 느끼고 결정된 일이나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므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구성원들과 함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를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곧 학교장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학교철학이 바르게 세워진 학교

학교의 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 모두가 바라는 교육목표 수립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구성원 모두가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수립하는 학교철학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학교철학을 수립하여 그것을 교육과정에 담아 죽산초등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교사와 학교장이 바뀌어도 죽산초등학교의 색깔은 그대로 지속되는 학교가 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4. 교육과정, 수업과 평가가 배움중심과 과정중심으로 변화하는 학교

수업은 학교교육의 본질입니다. 지식교육도 인성교육도 기본적으로 수업시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교사가 수업에 충실하고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평가의 방향과 방법도 이제는 변해야 하는데 평가가 바뀌지 않고는 수업의 변화도 금방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아이들의 참학력 신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과정중심의 평가로 전환이 필요하므로 평가 방법의 변화도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교사들은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실시하여 배움 중심, 과정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자율과 자치를 중심으로 민주적으로 변화하는 학교

아이들의 삶의 힘을 키우는 첫걸음이자 기초가 되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학생자치의 문화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고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들과 관련한 학교 내의 각종 문제 해결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회의를 개최하게 하거나 다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사의 개입 없이도 학생들만의 자율과 자치를 중심으로 민주적으로 변화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6. 교사의 성장을 도와주는 학교

학교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동력은 교사 그룹입니다. 교사들이 먼저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수업은 바뀔 수 없습니다. 수업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는 바뀔 수 없고, 학교가 바뀌지 않으면 학생이 바뀔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교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자각, 성장과 변화가 먼저입니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 성장을 위해 노력함이 필요함을 알도록 하고 성장과 관련한 방법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면 교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 교사의 성장이 스스로 일어나는 학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직접 만나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껴야만 배우는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가르침도 배움도 또 다른 즐거움이란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최근 학교교육과 단절되었던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교육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부모나 지역사회 조직이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례가 자주 제시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살아나야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생산자로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열린 학교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교육은 교과서와 교실을 넘고 학교 담장도 넘어야 합니다. 교실 안에서 교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한계를 알고 아이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로 교실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교육의 현장에 가져오는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학교장으로서 품어야 할 지역사회에 대한 비전이자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